

행복한 책임기

매튜 휴즈, 크리스 만의 '히틀러가 바꾼 세계'

잔혹한 시기는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공포를 새겨준다.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지 사십 년이 지나서도 후고 슈테켈퍼는 폭격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공포는 히틀러가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바르바로사 군사작전이 실패로 끝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독일인의 입장이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흔히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강제수용소가 공포일 것이다. 폰 만슈타인은 제11군 사령관 직책을 맡기 전 "유대인-불세비기는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나치 친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여가활동도 지원했으며 복지제도도 세웠다. 세상에 100% 있고 없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히틀러와 나치즘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1939년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 경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총을 쏠 수 있는 남성은 모두 전선으로 배치되거나 국민돌격대가 되었고 공장이나 농장은 극소수의 남성과 외국인과 일부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그나마도 연합군의 공습에 산산이 부서져버렸다. 돈을 주고 구할 수



독일인들에게 나치시대는

600만 명을 여러 강제수용소 등에서 체계적으로 살육했다. 이것이 히틀러와 나치가 악마로 명명된 가장 큰 이유다.

에픽테토스는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공포는 삶의 의지를 뿌리까지 뒤흔들어버린다. 연일 계속되는 공습을 견디다 못한 독일의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있는 음식은 거의 없었고 국민들의 정신도 점점 피폐해졌다. 이때 당시 게자 하흐만이라는 아이는 "평화는 빵 양쪽에 버터를 발라 먹을 수 있는 시기군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히틀러는 왜, 무모하게 짝이 없고 승산이 희박한 싸움을 벌였을까? "히틀러가 평화협정을 제안한 당시에 독일과 영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히틀러는 그의 생애 나머지를 사회복지국가의 평화로운 건설에 헌신했을 것이다." 이는 나치의 외무장관이었던 요하임 폰 라벤트로프가 한 말이다.

그러나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부터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독일은 공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 시대는 나름대로 질서가 잡힌 시대였고 안정과 번영의 가도를 달리던 시대였다. 에바 헤르만은 "히틀러와 나치즘 아래서 독일 국민들은 보다 강하게 결속되었다."라고 말했다. 아우토반을 건설함으로써 대량교통을 촉진시켰고 '가뭄을 통한 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작자는 히틀러 통치 아래서 독일인들은 국가적인 자살이나 다름없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그런 제3제국의 폐허에 남겨진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존이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수많은 공포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고 산다.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이 그렇게 잊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은 그런 우리의 망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현욱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작은 공연과 함께 한 강의... 클래식에 한걸음 가까이

김승일씨 '풍당 클래식' 강좌... 렉처 콘서트 진행 재즈·국악까지 구성... 수강생 150명 음악회 관람

요즘 지역에서 느껴지는 반가운 기운은 클래식에 대한 관심들이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게 다양한 클래식 음악 강좌다. 오랜 전통의 '베토벤'부터 지난해 문을 연 클래식 음악 감상실 '다락'이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유럽 여행'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첫강의를 시작한 호남신학대학교의 '풍당 클래식'(매주 금요일)은 후발주자지만 강력한 콘텐츠로 클래식 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다.

14일 밤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는 '렉처 콘서트'로 구성돼 있다. '풍당 클래식'은 '김승일 교수의 클래식 길라잡이'와 연주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과 함께 악기와 곡 등 클래식 음악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는 '렉처 콘서트'로 구성돼 있다.

김 교수는 이날 '음악의 의미와 주제, 동질성-음악에도 주어와 술어가 있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곡의 동기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설명하고 베토벤의 교향곡 7번 2악장과 부르크너의 교향곡을 들려줬다. 곡을 듣기 전에는 피아노로 직접 주제 선율을 연주하며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교수의 수업은 다소 딱딱하지만 클래식 음악을 체계적, 분석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더 없는

적합한 강의다. 수강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강의를 경청했다.

이날 렉처 콘서트를 진행한 이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중만(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씨, 피아니스트 서현일씨와 함께 무대에 오른 그는 가을에 어울리는 곡들을 들려주고, 바이올린의 역사와 곡의 구성 등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렉처콘서트'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클래식, 재즈, 국악까지 아우르는 풍성한 라인업이다. 광주시향 단원인 박문경(첼로), 이현경(플루트), 서용일(트럼본), 김용식(타악기)씨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구재향·문현옥·김경아, 성악가 박계·임혜철·김남경·조효종·강양은, 작곡가 정현수·김선철, 재즈 연주가 박수용, 국악인 성심은씨 등이 렉처 콘서트 강사로 참여해 연주를 들려주고,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풍당 클래식'은 김승일 교수가 호남신학대학교에 강의 개설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정년 후 작곡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김 교수는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의 저변화를 위해 열정을 쏟아왔다.

제안을 받아들인 호신대 임혜철 교수



지난 14일 호남신학대 예음홀에서 열린 '풍당 클래식' 렉처 콘서트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이중만씨가 연주를 하고 있다.

는 평생교육원 콘서트바토리 주관으로 프로그램과 강의를 확정했다. 강좌를 개설 당시 예상했던 인원은 50여 명. 하지만 무려 150명이 수강신청을 했고 서둘러 마감했다. 이날 현장에 서 만난 수강생들의 연령층은 다양했다. 초등학생 자녀와 온 엄마들도 눈에 띄었다.

임교수는 "클래식 강좌가 이렇게 호응을 받을 줄은 몰랐다"며 "렉처 콘서트를 제안한 예술인들 가운데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흔쾌히 동참해주어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을 꾸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음악회도 직접 관람한 다. 오는 23일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강동석과 함께하는 실내악 여행'에 이어 10월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지휘자 리 신타오(부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협연하는 무대도 찾을 예정이다.

김승일 교수는 앞으로 지역 연주자들의 공연장이 관객들로 북적이고 연주자들이 그 기운을 받길 바란다.

김교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호응이 좋아 보람을 느끼고 수강생들의 열기에 매번 놀라고 있다"며 "앞으로 강의를 듣는 이들이 공연장을 찾아 클래식 음악을 즐기고 또 지역 연주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모습을 꿈꾼다"고 말했다.

한편 '풍당 클래식' 강의는 총 23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가을학기(9월~12월·15주)와 겨울학기(1~2월·8주)로 나뉘어 있으며 수강료는 각각 5만원과 2만5000원이다. 문의 062-650-1564.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 마음 살찌울 독서프로그램 풍성

22일 상무시민공원에서 도서관 문화마당

선선한 가을바람에 책을 찾게 되는 시기, 광주지역 도서관들의 풍성한 독서 프로그램을 찾아 마음을 살찌우는 건 어떨까. 가족과 함께 즐길만한 참여 프로그램도 적지 않아 휴일 나들이엔 제격이다.

광주시립도서관이 22일 오전 11시부터 상무시민공원에서 여는 도서관 문화마당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지역 도서관들이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행사로, 독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책 읽는 소리, 광주를 흔들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펼쳐지는 행사에는 광주지역 16개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14개과 점자도서관 등 38개 독서 관련 기관·업체가 참여한다. 들꽃으로 책갈피를 만들거나 뇌 모자 만들기, 장난감 도서관 체험, 나만의 책가방 만들기, 나의 명언 쓰기, 동화와 만나는 요리, 알록달록 페인팅 등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한편, 집에 쌓여 있는 책을 기증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 뜻밖의 황재를 할 수도 있는 어린이 게임장과 '책 나눔 행복 더하기' 등 도서 기증·교환 코너도 준비된다. 문의 062-613-7731.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윤선도·윤두서의 삶과 사상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해남 윤씨 문중문헌 완간

시조문학의 대가 고산 윤선도, 천재 화가 공재 윤두서, 조선 시대 대표 가사 '일민가'의 저자 지암 윤이후...

호남지역 대표 문중으로 꼽히는 해남 윤씨 문중 출신 인물들의 삶과 학문,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책임교수 김대현)은 해남 윤씨 문중문헌 10권을 완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남 윤씨 문중 문헌은 고전연구실이 지난 2009년부터 한국학중앙

연구원 국학기초자료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호남지역 주요 문중문헌 조사 및 연구'의 결과물로, 모두 3년에 걸쳐 '당악문헌', '역주 고산선생 연보' 등 10권으로 엮여 왔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문헌 가운데 고산 윤선도의 탄생부터 삶, 학문, 사상, 예술생활을 포함한 당시 역사 흐름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고산의 일대기를 망라한 '역주 고산선생연보'는 번역이 처음으로 이뤄져 눈길을 끈다.



또 7년 9개월간의 사색을 일기로 기록해 당시의 역사·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윤이후의 '지암일기', 공재 윤두서의 문집 '공재유고', 윤덕희의 문집 '수발집' 등 그동안 문중에만 보관돼 있던 문헌들이 함께 출간돼 향후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문의 062-530-5022.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이태리가구 40% OFF SALE

NAVER **홍스페이스** **신상품 소파 입고!** www.hong79.com(홍천구닷컴)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00평 ☎1899-0240 2012 결산 빅세일 10월25일까지